

2023. 6. 1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2133-4700
식생활개선팀장	최숙영	2133-4702
담 당 자	이은형	2133-4741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마약류 의심 식품, 우리아이들 접근못하게 631명 '학부모 지킴이' 나선다

- 여름방학 전 7월까지 매주 1회 729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마약류 의심 식품 집중 모니터링
- 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
- 출처 불분명하거나 개봉된 식음료는 절대 섭취하지 않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7,211곳 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 확보와 마약류 유입차단 기대

4.3. 오후 6시쯤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 해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마시자 “구매 의향을 조사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후 부모에게 전화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가 발생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은 마약류 정보 부족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다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될 위험이 커, 사전에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서울시는 학교 주변, 학원 밀집가 등 청소년 생활 공간까지 파고드는 마약을 감시하기 위해 631명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의심 식품’을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우리 아이들로부터 마약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 ‘서울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이내) 내 안전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위촉된 시민 감시원으로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진열· 판매하도록 계도·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불분명한 음료는 신고’ 마약예방 교육〉

- 서울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마약류 의심 식품의 실효성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5~6.8. 유해성 약물 오·남용 실태,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유입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약물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탕, 젤리 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마약의 종류와 마약의심 식음료 발견시 대처 방법, 어린이 약물 중독사고 사례 등이다.
 -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개봉된 식음료는 절대 섭취하지 않고,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마약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631명, 729개 어린이 보호구역서 감시활동〉

- 이번 631명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총 729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에서 청소년 등에게 무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름방학 전 7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심 식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7,211곳 점검도〉

- 또한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11개소에 대해서는 무등록(무신고) 제품, 무표시되거나 개봉된 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지 점검해 나간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식품 조리·판매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통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와 함께 마약류 의심 식음료 감시자의 역할이 더해져, 청소년 생활 공간의 식품 안전 확보뿐 아니라 마약류 유입 차단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약류 의심 식품 점검은 7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마약류 근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들이 확인되지 않은 식음료를 마약인지도 모르고 섭취해 중독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의 무료 식음료 제공 행위와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